

이세준 개인전에 부쳐

김인선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디렉터)

2019년 7월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의 이세준 개인전 <세계관 Weltanschauung>은 작가가 관객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수집해온 개개인의 세계관에 대한 질문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종교에 대한 믿음을 비롯하여 신의 존재 여부, 우주 및 지구 외 생명체에 대한 인식, 죽음과 사후세계, 초자연적 현상, 인공지능 등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인식 세계에 대한 관객 개인별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세준 작가가 현재의 인지 가능한 현상을 소재로 두면서 우리에게서 일상적이지 않은 색과 장면으로 캔버스를 채워 나가는 행위 또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시각화 한다는 점에서 그가 묻는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종종 그의 작업을 매우 사실적 묘사라고 말하곤 한다. 이세준 작가에게 그가 주로 사용하는 화려한 색채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이 형광과 원색이 뒤섞인 화려한 색채가 그에게는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색채라고 하였다. 2015년 전시에서 그는 토르 인형을 그려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영화에 등장하는 토르 캐릭터의 모습이긴 하였지만 작가 특유의 변형되고 야광스러운 색채로 그려진 것처럼 보였다. 너무 이세준 작가스러운 토르 아닌가요, 했더니 모바일폰으로 찍은 사진을 하나 내밀었다. 놀랍게도 그 사진은 그림에 그려진 바로 그대로의 모습과 색을 가진 조악한 토르 인형이었다. 그림은 그 사진 속 인형과 똑같은 묘사였다. 이는 그가 2016년도에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에 6개월 정도 베이징에 머무르면서 본 인형이었다. 이번 전시의 그림들을 살펴보다 보면 조악하기 짝이 없는 세일러문이 그려져 있는 캔버스가 있는데 그것 역시 보이는 대로 그린 사실적 묘사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보면 앞서 기술한 '우리에게 일상적이지 않은 색'이라는 표현을 철회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가 사용하는 색은 대다수의 회화 작가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색일 뿐, 주변을 둘러보면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작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의 눈에는 이 세상이 화려하게 보이는데 그에 비해 많은 회화 작가들의 색채가 오히려 세상의 장면에 필터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혹은 나의 시각 구조가 남들과 다른 건가 반문해보곤 한다고 했다.

이번 전시 <세계관 Weltanschauung>을 위하여 연출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의 벽면 하나가 다양한 크기의 캔버스들로 빈틈없이 메워졌다. 124개의 그림은 <77억 가지 신의 이름>이라는 타이틀로 하나의 회화 설치 면을 이루었다. 이는 1967년도에 출간된 아서 클라크의 SF 소설 "90억 가지 신의 이름"에서 차용한 제목이다. 해당 숫자의 신의 이름을 모두 호명되는 순간 지구가 멸망한다는 내용의 이 소설은 작가에게 매우 인상적인 세계관을 남긴 듯하다. 작가는 이를 좀 더 확장하여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 수만큼 각자의 세계가 있음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개별 세계를

옛보는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들을 인터뷰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는 그의 그림에서 전시 기간 중 관객이 제각각 답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캔버스마다 해당 답변과 관련한 혹은 해당 답변에서 영감이 된 이미지를 그려나가기 시작하였다. 세계관에 대한 질문이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에게 비가시적 세계에 대한 상상을 요구하듯, 이세준 작가가 구현한 이미지는 현실과 비현실의 세계가 혼재된 양상이다. 일상의 모습의 구현으로 보이는 구상적 표현은 붓자국과 강렬한 색채만이 남은 추상적 표현들이 함께 하거나 점차 일그러지거나 혹은 알 수 없는 흔적만이 남겨지기도 하였다. 그것은 하나의 화면 속에서 형성된 여러 겹의 레이어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완성한 회화 장면에는 스티커가 그려져 있거나 실재 스티커가 붙어있기도 한데, 이는 특정 장소로서 묘사된 평면 속 환영적 공간을 분리시키는 일종의 겹으로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림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그림 속에 등장하는 무언가에 붙은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다른 작업들의 느슨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의 세계를 향한 질문은 또 다른 방법론으로도 구현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보여준 작품 〈악어와 함께, 2018, 80x100cm, 캔버스에 아크릴〉는 캔버스에 그린 후 자르기를 반복하여 겹겹이 붙여서 하나의 장면을 만든 작품이다. 각 레이어의 이미지를 따라 잘려진 모양은 레이어간의 간격을 두고 작품의 두께를 만들어내면서 밀도와 깊이감을 만들어냈다. 그는 이 작업이 새롭게 탐구하고자 하는 평면의 영역에 대한 또 다른 초기의 시도로 여기고 있다. 이전의 평면은 캔버스가 이어붙여지는 방식으로 넓게 확장해 나가는 영역을 보여주면서 화면 속에서 복잡한 이미지들의 혼재를 보여주었다면, 이러한 작업은 이미지 간, 레이어 간 상호 가려지는 동시에 서로가 드러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평면으로서 가지는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방법론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이세준 작가가 탐구하고 있는 세계관의 영역은 언제나 변하고 있고 그 영역이 다양하며, 다분히 철학적이기도 하면서 매우 일상적인 사고에서 출발하기도 한다. 자신과 다른 이들이 보고 있는 세계에 눈을 돌려서 이해하거나 혹은 자신이 믿는 세계를 긍정하는 근거로 삼기도 하고 혹은 타인의 세계를 반박해보기도 하고 있다. 이쯤 되면 작가 자신의 세계관은 단지 다른 이의 세계관을 묘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적인 자리에서 그가 질문한 것들을 되물은 적이 있다. 그는 그가 질문하고 있는 신의 존재나 영혼의 존재 등을 믿지 않는다고 했다. 단지 그것이 현상으로서의 존재할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 혹은 실험의 결과로서 증명된다면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많은 이들이 실재로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재한다고 믿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다. 이러한 과정 역시 그가 찾는 명확한 증거를 찾는 행위일수도. 그리고 그의 물음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찾게 되면 그의 세계관은 또 다른 변화를 보여주게 되는 것일까?